"지구촌 시대… 의료 교류 더 필요해"

경기도의회 복지위 간담회
케냐 바링고주의회와 소통

"지구촌 시대 나라 간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의료협력 등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 최종현, 민주당, 수원7)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케냐 바링고주의회 및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분야 해외협력과 한국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 모범 사례 등을 살펴봤다.

복지위는 지난 12일 케냐 바링고주를 방문해 벤자민 체시레 체보이 주지사를 면담하고 빈센트 켐보이 바링고주의회 의장 및 15명의 주의회 의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와 바링고주 간 의료인 연수, 나눔 의료, 공중보건인력 교육 연수 등 의료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복지위는 지난 15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위치한 '나누리병원'을 방문해 국내 의료진의 의료산업 해외 진출 사례를 살펴봤다.

나누리병원은 아랍에미레이트 최고의 정형외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 병원은 근골격계 장애를 전담하는 스포츠의학 클리닉으로 한국전문팀이 고급 임상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위는 지난 16일에는 세계 최초의 의료 중심 자유무역지대이자 중동 아프리카지역 최대 보건의료 중심지구인 '두바이 헬스케어시티'를 방문해 의료산업 모범 사례를 살펴봤다. 헬스케어시티는 질병치료 및 웰빙과 예방 의료기증 강화로 두바이 의료 관광객 유치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케냐 등 공무 국외출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해외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성공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국경이 사라진 시대 경기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가 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확대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공무국외출장에는 최종현 위원장, 김동규 · 김재훈 부위원장, 박옥분 · 김미숙 · 이제영 · 이인애 · 이혜원 · 박재용 · 황세주 의원, 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장,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이문형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국외출장에서는 경기도와 케냐 바링고주 간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보건 의료 관련 전문가와 의료인 연수 등 인적교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정보시스템, 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의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상호 교류 협력하기로 했다.

김인창 기자

고향사랑 기부제 이해·활성화 방안 강구

인천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
연구소장 초청 강연회 열어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한민수 · 장성숙 · 신충식 · 임춘원 · 정종혁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태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소장을 초청, 전문가 강연회를 개최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고향사랑 기부제' 이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한민수 · 장성숙 · 신충식 · 임춘원 · 정종혁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태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소장을 초청, 전문가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용태 소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이해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이바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1월1일부터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고향 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으로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누구나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의 30% 내에 상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별 고향 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날 김 소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숙원사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인력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부도 투자다'라는 관점 이해, 기부자 대상 분석과 모금 전략을 결합한 답례품 구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김 소장은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회 및 전문 지원조직 설치, 답례품 조사 · 선정 정책연구를 통한 답례품 중복 방지, 기부금에 대한 전략 · 홍보 정책연구를 통한 기부금 사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허식 의장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델이 됐던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기부를 쉽고 편리하게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는 한 언론사 기고문을 봤다"며 "행정안전부가 주관 · 운영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은 지자체는 물론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 개발 · 운영해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천시는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보호 대상 아동 교육·상담 치료 기반 마련

유경희 인천시의원 발의
임시회 2차 본회의 통과

인천지역 내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상담 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민주당, 부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호 대상 아동의 심리적 ·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사업 실시에 대해 규정했다.

유경희 의원은 "아동양육시설에는 지적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과 ADHD아동이 시설 현원의 28%로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대상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종삼 기자

의회 단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9일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위치한 남사읍주민자치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용인특례시 화훼협회 간담회'를 열어 화훼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화훼농가 살리기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농정위원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9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남사읍주민자치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용인특례시 화훼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해 방성환 부위원장, 서광범 · 김영민 의원, 이문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이종필 용인특례시 농업정책과장, 조성민 용인특례시 화훼협회 회장 등 18명이 참석해, 용인특례시 화훼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참석한 화훼농가 종사자 및 청년농업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악해진 화훼농가의 실태와 인프라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실제 도내 화훼시장이 지난 2019년 2억7518만본인 판매량은 2020년 2억6138만본, 2021년 2억5353만본으로 매년 3% 이상씩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꽃 소비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가격안정을 비롯해 수요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반려식물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화훼농가는 꽃을 키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담되는 생산비에도 난방을 멈출 수가 없으며, 최근 가스 ·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인상에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우리 화훼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위로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화훼농가의 현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인창 기자

교동 어울림센터 개소식 참석

조미옥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민주당, 평동 · 금곡동 · 호매실동) 위원장이 19일 '교동 어울림센터 기념식'에 참석했다.

교동 어울림센터는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주민 공동체 거점 공간이다. 이곳은 과거 행정과 사법의 중심지로 경기도와 수원시의 다양한 행정기관이 있어 수원 최대 인쇄산업의 중심지였으나 경기도청 이전과 외곽 신도시 개발로 인해 지역쇠퇴와 슬럼화 현상을 겪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지역상권의 활성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마을 구축 등을 목표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으로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교동 어울림센터는 이 사업의 마중물로 활력 넘치는 공유경제 마을 조성과 주민이 이끄는 자율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교동 어울림센터에는 자원순환샵, 전시 · 체험실, 다목적실이 조성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역사문화거리 조성,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사업,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등의 도시재생 사업도 함께 추진했다.

조미옥 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가 교동을 비롯한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나누겠다"며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역주민과 상인 · 단체 등이 손잡고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계속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평 · 금곡 · 호매실) 위원장을 비롯한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희열 기자